

3

포도나무와 가지

요 15:1~11

찬송가 246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 144장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배울



1.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모든 성도는 교회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압니다.
2. 교회와 나의 관계를 알고,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 15:1~6)



을 이해하기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며 나무를 위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벌레를 잡아 주고, 깨끗하게 해 주며,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해 줍니다. 가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정상적인 영양 공급을 받아 자라게 되며 열매도 많이 맺게 됩니다. 만약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곧 말라 버리게 되는데 거기서는 아무런 성장이나 열매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나무는 주님을, 가지는 우리를,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열심히’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기’입니다.

구 분	생활 모습	결 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말씀과 교제 안에 마음과 생각이 고정되어 있음	열매를 맺음 기도응답을 받음 기쁨이 충만하게 됨
떨어져 말라버린 가지	몸만 교회 안에 있거나 교제에서 떨어진 상태	성장과 열매가 없을 뿐 아니라 자기 본분을 망각하여 도리어 빛을 가리는 생활을 하게됨 (책망과 부끄러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 오가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나무와 가지가 분리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함께 주님을 위한 삶에 적극 동참할 때에 우리에게 많은 열매가 맺힐 뿐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 15:3~4)

You are already clean because of the word which I have spoken to you. Abide in Me, and I in you. As the branch cannot bear fruit of itself, unless it abides in the vine, neither can you, unless you abide in Me (Jn 15:3~4)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나 문장에 밑줄을 그어 봅시다.
- ②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꼭 해야 하는 일을 말씀에서 찾아봅시다.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각각의 비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농부)



(포도나무)



(가지)

②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교제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갑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적어 봅시다(갈 5:22~23).

③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제(교회) 안에 거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교제(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교제해 봅시다(예: 불같은 성질이 온순해졌다. 입에 욕을 담지 않는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 등)

④ 교제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가 적거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시 23:1~2

의

시 23:4

화

사 26:3

↑

요 15:2

↓

요 15:6

↓

요 15:7

↓

갈 5:22~23



교제의 축복

인도에 선다싱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네팔 전도에 나섰을 때, 자기 친구 한 사람과 같이 그 산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서 추위로 떨며 쓰러져 있는 행인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혹독한 추위로 자기들도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상황이라서 행인을 거들떠 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도무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길을 가던 친구는 그냥 두고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이대로 그 사람을 두고 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와 한참 다투다가 그를 먼저 가게 하고 자기는 추위에 떨면서 길 옆에 쓰러져 있던 행인을 들쳐 업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산길을 갔습니다.

가다 보니 먼저 길을 떠났던 그 친구가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자기가 들쳐업은 사람 때문에 땀을 흘렸고 두 사람의 체온이 얼어붙게 하는 추위를 녹일 수 있었기 때문에 산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다싱의 감동적인 여행일화입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격려할 수 있다는 것, 같이 눈물을 나누고 아픔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도간 교제의 큰 축복입니다.



질문 있어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성경은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저자(著者)라 부르지 않고 기자(記者)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받아 적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느 유명인사의 연설을 기자가 그대로 받아 적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음을 뜻하는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겔 6:1),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렘 7:1) 등의 표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의 뜻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동(感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로메노이’입니다. 이 낱말은 사도행전 27장 15절과 17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바람에 쫓겨 가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 ‘쫓겨 가다’라는 의미로 쓰인 헬라어 낱말이 바로 ‘페로메노이’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으로 쓰였다’는 말의 뜻은 바람에 의해 의지와 상관없이 밀려가는 배처럼, 성경이 그 기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의지와 상관없이 기록되었다’고 할 때, 기자들의 모든 것이 완전히 무시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각각의 기자들에 따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 방법을 달리하셨습니다(히 1:1). 직접 불러주어 받아쓰게도 하였고, 환상이나 꿈을 통하여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기자들의 교육수준이나 환경, 각각의 재능이나 문체가 반영되기도 하였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든 성경은 그 기록과정에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기자들의 자의적인 생각이나 해석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답후 3:16).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완전성에 대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이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5:18). 또한 하나님은 성경을 완성하시면서 성경의 맨 끝 부분에 사도 요한을 통해 성경에 더하거나 제하지 못할 것을 명백히 선언하셨습니다(계 22:18~19).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벧후 1:21)